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시스템 운영



▲ 라승용 원장

- 2004 고려대학교 농학박사
- 1976 국립농산물검사소 생사검사과(농원지원보)
- 1981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 농약생물과(농업연구사)
- 1992 농촌진흥청 원예시험 및 연구소(부산지장, 시설재배, 채소육종, 원예환경과 연구관)
- 1999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기획과(농업연구관)
- 2001 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장 식물환경과장
- 2003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연구운영, 정책 과장)
- 2007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장
- 2008. 12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축산분야 선진화에 주력

라승용(羅昇龍)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지난해 12월 축산업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라승용 원장은 '57년 10월 9일 전북 김제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에서 농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1976년 농림부 국립농산물검사소 임용으로 농업과 연을 맺게 된 이후 1981년부터 농촌진흥청으로 자리를 옮겨 농약연구소, 원예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식물환경과장,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장·연구정책과장을 거쳐 연구개발국장 등 농촌진흥청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줄곧 농업연구사업 발전에 매진하여 왔다.

라승용 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앞으로 세계인류 축산연구기관 육성을 비전으로 15개 아젠다 중 축산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조기 달성하고, 연구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의 지속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 지자체, 학계, 그리고 정책과의 업무공유체계를 만들어 고객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외 변화와 트렌드를 읽고 축산분야 연구개발(R&D) 보급의 틀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개선하는 한편, 2008년 1년 동안 중앙공무원교육원(고위정책과정)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그동안 쌓아온 연구관리 경험을 접목하여 농촌진흥청과 축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현장 애로사항 신속 해결

라 원장은 올 해 축산기술개발 방향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 ▲신성장 동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축산기술 연구 ▲종축개량의 선진화 및 시스템화 ▲축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축산물 안전성을 포함한 질병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라 원장은 이를 위해 전문연구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연구 사업의 효율을 높임은 물론 농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 질병과 사양분야가 함께 공존하던 것이 현재 질병방역업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축산연구업무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각각 분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좁혀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라승용 원장은 'AI저항성 닭 품종을 개발'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현재 축산과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서로 협조하여 연구에 임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실용적인 연구에 중점

라 원장은 388명의 축산과학원 식구들이 하나 같이 축산과학원 혁신과 발전의 주인공이라는 자세를 갖고 임할 때 축산과학원은 비로소 축산인들이 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라 원장은 축산과학원이 타 기관들보다 연구 실적과 성과에서 앞서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업적을 이루어 왔지만 양적인 성장과 단편적인 연구에 치우쳐 종합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미흡하거나 축산인, 시장, 정책 등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부족하여 비판적인 외부평가를 받기도 한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고 앞으로는 개인보다는 업계와 국익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뜻을 밝혔다.

라 원장은 이어 국가적 현안인 축산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산 축산식품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돼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 또한 축산과학원이 나서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양 기술 개발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이와 함께 연구외적인 것으로 지금까지의 평가시스템을 점검하고, 기관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